

## ‘잇단 비위·허술한 행정’ 광주지법, 사법 불신 자초했다

송달 수수료 빼돌린 실무관 파면, 검찰 수사 중 가압류 해제 실수 뒤 ‘국가 상대 소송하라’ 발언 “구조적 문제점 해결 않고 꼬리자르기식 대응만”

광주 지역 일부 법원 공무원의 비위와 허술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안을 찾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또는 실수로만 치부하는 법원의 안이한 자세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실무관 A씨가 송달 수수료 5000만~7000만 원(추정)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와 함께 파면됐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송달 수수료는 민사 재판 전후 각종 신청 사건의 경비다.

이 비유 자체는 ‘소액’으로, 횡령 금액에 비해 보면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법원에 알렸고 이후 자체 조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법원은 송달료 시스템 관리·감독과 A씨와 같은 부서 상관들에 대한 감사 여부 등을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1명이 송달 관련 전산 입력과 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려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기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이 사안을 처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또다른 직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접수받고도 6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았다.

가압류 신청·해제 업무는 개인의 재산상 권리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도 가압류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가 상대 소송하라’는 무책임한 말한 내용이며 민원인의 분노를 키웠다.

민원인의 징계 요구를 담은 내용 증명을 받고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비위·비리 행위 발생 때 기관장 사과와 함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의 일탈 또는

실수로만 치부하며 조직 전반에 깔려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지 않고 있다. 폐쇄적·권위적 행정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성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제 식구의 비위·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꼬리자르기식 대응만 하고 있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어진다면, 사법 개혁은 요원할 것”이라며 “법원이 왜 불신을 받는지 엄

중히 성찰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음주운전 1명(징적 2개월), 성실의무 위반 1명(감봉 3개월) ▲2017년 성실의무 위반 1명·성매매 3명(감봉 3개월), 음주운전 2명(감봉 1개월) ▲2018년 음주태매 1명(징적 3개월), 음주운전(건책) ▲2019년 직무 태만 2명(각 경고·감봉 3개월) ▲올해 무면허운전(징적 2개월) 등이 다.

김민정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세계적 암치료 병원’ 선정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 위크지’가 선정한 ‘월드 베스트(World's Best) 암병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미국의 ‘뉴스 위크’ 선정 암치료 월드 베스트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뉴스 위크는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와 소비자 데이터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공동조사를 통해 암, 심장질환, 내분비질환 등 3개 전문분야별 세계 최고수준의 병원을 발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치료 분야에서 아산병원·삼성병원·서울대병원·강남성모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선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암치유 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최첨단 의료장비와

협진체제를 도입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2010년과 2013년 획득했으며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 분야별 암치료역량 최고등급, 암환자 생존율, 저렴한 의료비 등을 인정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입원환자들이 경험한 의료서비스 평가’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또 한국관광공사 가 해외 홍보를 위해 올해 발간한 ‘엑서티 트래블 가이드 북’에 국내 대표 의료기관 3곳 중 한 곳으로 소개됐다.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암치유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민생경제 등 고려”

“국민 피로감·경제 등 적극 고려”  
“확산세 억제…지자체 자율 보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

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

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안전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외출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보수단체가 예고했던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선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체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건강과 웰빙의 대표음식!

# 영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